



C o n t e n t s 로타리코리아 2007년 4월호

The Rotary Korea Rotary World Magazine Press 로타리코리아는 국제로타리 공식 지역잡지입니다.
 통권 392호(月刊) | 발행 2007년 3월 25일 | 발행처 로타리코리아 위원회 TEL 02-730-2511 | 발행인 이재윤 | 인쇄 삼화인쇄(주)

www.rotary.org 한국로타리 홈페이지 www.rotarykorea.org 한국로타리 홈페이지 E-mail 주소: rotaryko@chollan.net 국제로타리 홈페이지 www.rotary.org

RI 지정기사

- RI 회장 메시지
- 14 地球 환경보전에 앞서서 나아가자 윌리엄 B. 보이드
- 로타리 인사이드
- 15 인도 소아마비 박멸을 향한 전진 루이스 V. 자이
재단관리위원장의 생각
The Rotarian誌와 로타리재단
- 18 국제로타리 이사회 결정 사항
- 78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 결정 사항
- 지구 환경보전
- 19 몽골 나무심기부터 태양열 오븐까지
- 23 환경 친화적인 주회 만들기
- 52 타지키스탄의 마실 수 없는 물 Bettina Kozlowski
- 44 솔트레이크시티 퀴즈
- 48 클럽주회 演士 찾는 10가지 비법 Jonathan Black

특집 || 로타리 잡지의 달

- 27 RWMP 빛을 발하다 Bettina Kozlowski
- 28 국제로타리 公式雜誌
- 30 제18회 전국 클럽주회 콘테스트 본선
- 31 大賞·金賞 클럽 수상 소감
- 34 심사총평/ 로타리 활동의 기초자료 '週報' 申人鎭
지구 예선 통과 클럽
- 35 잡지, 관공서에 비치해 로타리 홍보
- 36 '로타리코리아 문화상' 제정



Focus

- 국제봉사
- 46 캄보디아에서 의료 진료, 구호활동 - 중원RC 김희호
- 사회봉사
- 50 뜨거운 한센인 사랑 - 신평향RC 최미희
- 51 필리핀에 기술학교 건립 - 신갈RC 권의범

이모저모

- 38 2009 서울 국제대회 의무분담금 안내 金光泰
- 63 2006~07년도 존9 지구대회 일정
- 80 몽골 방풍림 식목행사에 참여합시다!

- Editor's 칼럼 ㉓
- 16 봉사의 테크닉 李在允
 - 총재 칼럼
 - 25 동기부여로 생동감 넘치는 클럽 만들자 李龍雨
 - 26 善行의 치유력 許弼學
 - 編輯者 칼럼
 - 37 로타리코리아를 세계 최고의 지역잡지로 申人鎭
 - 로타리 스피치
 - 42 리더십과 윤리 비차이 라타쿨

로타리 뉴스

- 2006~07 존9 홍보위원장 워크숍
- 40 효율적인 홍보로 로타리의 빛을 발하자
 - 39 간노 다리오 방한 환영회
 - GSE 보고
 - 56 인도의 향기 이현란
이 사람
 - 57 청소년교환 61명 배출한 張鐘基 위원장
 - 58 지역 로타리 봉사대상 - 3670·3680·원주중앙RC
 - 60 3670지구 PHS 창립 이한권의책
 - 61 산사의 '바둑 두는 여자' 南星姬
 - 62 李東建 차차기 RI 회장 클럽주회 makeup
 - 67 都農 자매결연 - 진보+성남희망, 경주선덕+성남은행

친구의 자리

- 64 오케스트라의 조화와 로타리즘과의 만남 南善祐
- 65 곁에서 본 이동건 차차기 회장 崔景天
- 66 '新世代 인사법' 全心敏
'목도리' 알고보니 로타리안의 자녀

55 3740지구 지구대회



물 길러 가는 우간다의 소녀

전세계 11억 명 안전한 식수 부족,
26억 명 기본 위생 시설 미비,
연간 6,000명 수인성 질환으로 사망.

국제로타리 수자원 리소그룹은
모든 로타리안들이 지역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물파주기 사업 등에 동참하기를 권장한다.

사진 제공: 박경배(기아대책/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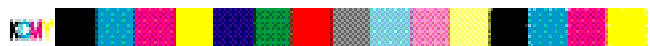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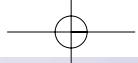
단신 · 기타

- 41 설문조사 / 당신은 몇 세대 로타리안?
- 78 로타리재단
- 81 게시판/동정/알림
- 82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 83 로타리 현황

연재

- 68 지구소식 · 창립소식 · 클럽활동
로타리창립 102주년 기념주회
- 84 Editor's 로코
솔트레이크시티 국제대회 한국 조찬회 안내
로코 광고 안내

정보와 지식, 감동과 기쁨의 잡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높은 수부의 노래'는
모를 지 모르지만 마실 수 없는 물에
둘러싸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너무나 잘 안다.

WATER WATER

물, 물,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물

타지키스탄에 있는 900년 된 사요드(Sayod)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있으며 거대한 빙하로 둘러싸여 있다. 이 빙하에서 아주 많은 눈이 녹아 강으로 흘러 내리고 있어 타지키스탄은 인구당 수 자원 비율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글 · Bettina Kozlowski / RI 인터내셔널 에디터
사진 · Michal Fidler

RI 指定記事



로타리안들이 만든 물 공급 시스템 덕분에 훨씬 풍성한 채소 수확물을 팔러 시장으로 향하는 가족

국토의 90% 이상이 산으로 둘러싸인 타지키스탄 사람들은 '세상의 지붕 위에 있는 나라 (country on the roof of the world)'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마을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낡은 나무다리에 의지한 채 강을 건넌다.(위)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베에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다.(아래)

몇 년 전만 해도 사요드는 척박한 땅 위에 세워져 있는 마을이었다. 640여 명의 주민들은 사람과 가축, 땅에 줄 깨끗한 물이라고는 없는 고도(高度)의 계곡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만 명의 타지키스탄 국민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 여자들은 때로 당나귀를 앞세우기도 하면서 매일 산에 올라가 수질을 믿을 수 없는 시냇물을 길어왔다. 여름이면 개울은 말라붙곤 했다. 몇몇 주민들은 마을 길바닥에 고인 웅덩이에서 빗물을 받기도 했지만, 그 물에는 근처 밭에서 나온 비료와 가축의 배설물이 섞여 있었고 복통을 유발하거나 장티푸스, A형 간염까

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세균이 있었다.

사요드와 타지키스탄이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다. 1929년에서 1991년까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속했던 타지키스탄은 소비에트 연방의 대규모 수자원 기술 투자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곳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 중 하나로 아프가니스탄 국경 부근에 있는 304m 규모의 누렉 댐(Nurek Dam)을 건설하기도 했다.

19세기 러시아에 속하기 전, 아랍, 터키, 아프간 등의 지배를 받았던 이 부족국가는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력으로 강력하게 변모했지만, 1991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

립한 후 타지키스탄은 1997년까지 처참한 내전을 겪었다. 소비에트 시대의 수력 발전소는 파괴되거나 방치되었고 노후한 수도관은 부식되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2000년도에 수도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타지키스탄 농촌 인구는 20% 미만이다.

플로리다 로타리안 물 부족 소식을 듣다

타지키스탄 인구 700만 명의 2/3가 농경과 축산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갔기 때문에 물 부족 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 플로리다 라벨RC 회원인 존 카파체 전 플로리다대학 교수가 우즈베키스탄 방문 교수 한 명을 초대했을 당시, 타지키스탄의 물 문제는 미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 초대 손님은 중앙 아시아 옛 소비에트 연방 지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눈 덮인 빙하에서 겨우 물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카파체는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국경 사이, 미국 위스콘신주보다 약간 작게 초승달 모양으로 자리한 타지키스탄에 집중하기로 했다.

목마름을 해소하다

카파체는 로타리의 후원으로 '인텔리겐차 인터내셔널'이라는 공학 전공자를 위한 전세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체코와 타지키스탄에서 인턴으로 왔던 두



로타리안들이 CARE 엔지니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절벽 1,200피트(365m) 아래까지 뻗어 있는 플라스틱 파이프라인을 점검하고 있다.(왼쪽)
타지키스탄의 한 가족이 깨끗한 식수 사업을 통해 질병이 줄어들도록 해준 지역 사회와 로타리안에게 건강을 기원하는 건배를 하고 있다.(오른쪽)

명을 두산베로 보내 타지키스탄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했다. “수 천 명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저와 두 명의 학생이 마치 방랑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타지키스탄에 처음 가보았던 카파체는 이렇게 술회한다.

그러나 두 명의 학생들은 수자원 인프라 청사진 설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비영리 조직인 ‘CARE(美 대외구제협회)’, ‘USAID(美 국제개



존 카파체 연락처:
868-674-5727 또는
www.rotarywater.org
방문

발처)와 협력하여 산의 수원지(水源池)에서 수도관으로 물을 전달할 수송관을 새로 만들고 보수했다. 이로써 사요드와 두산베 북쪽 두 마을의 주민 3,500명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로타리 회원국 탄생

한편 카파체는 로타리 기술과 자원이 있으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타지키스탄에는 클럽이 없었기에 두 명의 학생에게 두산베에서 사람을 모아 타지키스탄 최초의 로타리클럽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두산베RC는 2005년 4월 창립되

자마자 미국의 클럽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했다. 로타리클럽과 지구(地區)가 약 5,600달러, 로타리재단이 약 4,900달러, CARE가 약 1만2,300달러, 타지키스탄 여러 곳에서 약 1만300달러 가량을 기부했다.

지역 주민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각 마을 수원지에 배수구와 콘크리트 웅덩이를 만들었고, 도랑을 파고 플라스틱 수송관이 계곡의 저장 탱크에 닿을 수 있게 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수송관 한개의 길이가 365m에 달한다).

펌프 대신 중력을 사용해서 물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전기는 필요 없었다. 주민들은 저장탱크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수도관을 설치했다. 로타리안, CARE, USAID가 각 마을 물 공급 현황을 감독했으며, 시스템 유지비용을 징수할 물 감독자치기구를 만들어 교육했다.

2006년 4월, 카파체와 타지키스탄 동료들은 중력을 이용한 이 방식으로 아홉 개가 넘는 마을의 주민 1만2,000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 내 19개 로타리클럽과 플로리다, 인디애나 地區에서 3만6,200달러, 로타리재단 3만3,700달러, CARE 2만5,000달러를 기부했다.

지역 주민들은 1만5,000명 이상의 타지키스탄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가져다 준, 큰 반향을 일으킨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며 기뻐했다. 사요드 마을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을 만큼의 농작물조차 기르지 못했던 땅에 배나무와 밀, 메밀, 감자, 당근 등의 채소를 심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두산베 시장에 내다 판다. 그래서 닭과

염소, 가축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고 그 덕에 달걀과 우유도 팔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경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요드 마을 사람은 없습니다.” 마을 학교 교장 겸 이사장인 압두카렘 카리모프가 학교 창문너머로 풀이 자라는 것을 보며 말한다. 그는 사과나무와 소나무에 첫 싹이 틀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240명의 학생들은 학교 정원에 감자와 포도씨를 심었다. 식수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자 수인성 질병도 줄어들었고 특히 취학 아동의 경우 깨끗한 물로 손을 씻을 수 있게 되면서 고통스러운 복통을 겪는 일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더 밝은 미래

식수 사업은 마을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 그 이상, 즉 목적 의식을 가져다 주었다. 두산베RC 회원인 사비나-마르가리타 잘라에바는 “마을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땅을 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목초지도 보았구요. 모두가 바빠 보였어요. 전에는 마을에서의 삶에 절망하고 도시로 떠나 결국 일도, 희망도 잃고 길거리로 나왔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카리모프는 수도관을 깔기 위해 봉사했던 3개월 간의 노고에 깨끗한 물로 충분한 보답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차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되자 모래와 조립 파이프를 들고 산까지 옮겼다고 한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는 공사 진행자였지만 또 동시에 땅을 파고 파이프를 옮겼지요. 지금은 아주 만족합니다. 물이 있으니 사는 게 더 쉬워질 겁니다.” ●